



꿈틀꿈틀 용꿈소식지

남원용성고 매직 2 호

아시아경제

“이러려고 대학 나왔나...” 대졸 청년실업률 ‘깡충’

올해도 역대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특히 치솟고 있다.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신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 고교생 10명 중 7명이 대학을 가는 학력 인플레이션 등까지 겹치면서, 전체 청년실업률 상승폭을 무려 4배 이상 웃돌았다. 여기에 통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고시생 등까지 포함하면 대졸 이상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졸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졸 실업자 증가속도가 특히 빠르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중략) 김안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고졸이하의 경우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면 끝이나??? 취업해야 끝이다.” 특성화고 취업률 고공행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직업계고 취업률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47.2%에 달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이래 7년 연속 상승했다.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이하생략)



남원용성고만의 장점

- *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공무원·공기업희망자)
- * 지속적인 자격증 취득지도(1인 1개 이상, 2017년 1인 학생이 최고 6개 취득)
- * 경험과 체험으로 즐기는 교육과정
- * 특수목적대학, 특성화고 특별전형 진학을 위한 내신관리
- *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한 우수대학 진학기회 획득



“남원용성고등학교가 매력적인 직업계고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교육부 주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은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계획(2017. 4. 25)’의 후속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선정된 학교는 매년 2억원(평균)씩 최장 6년간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명문직업계고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